
GILARDI

BIC을 소유한 여자들

나는 만남이 열리기로 한 카페 입구에 도착해 있었다.

나는 떨고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은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 하나를 던지는 종류의 떨림이었다: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침내 나 자신을 한계 너머로 밀어붙인 것인가?

질문은 하나 더 있었다: 이 작전으로 나는 무엇을 얻는가? 나 자신에게조차 너무 깊이 숨겨서 이제는 나도 알아볼 수 없게 된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진열된 장미 한 송이에 손을 뻗어 꽃잎 세 장을 떼어 내고, 그것으로 얼굴에 향을 입혔다. 애프터셰이브는 출장 예산에 들어 있지 않았지만, 남자의 냄새만 풍기며 도착하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L'Oréal의 아들 Georges의 고향에 와 있었고, 그 회사는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배경 음악 삼아 내 웹사이트의 음악을 틀었다. 우연히도 흘러나오기 시작한 곡은 나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함께 연주하곤 하시던 바로 그 곡이었다: 만돌린과 기타. 그들이 나와 함께 있었다. 우리 셋은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Chanel이 멀리서 나를 보고 다가와 따뜻하게 안아 주었다. 마치 오랜 세월 끝에 다시 만난 오랜 친구처럼. 큰 키. 금발. 파란 눈. 단정하게 묶은 머리. 남색 원피스에 감싸인, 숨이 멎을 듯한 존재감. 한순간 나는 그녀에게 성당이 어디 있는지 묻고 당장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뻔했다.

그녀는 나를 테이블 쪽으로 안내했다. 여섯 명의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가 막 시작되려 했고, 나는 대결은 결코 없으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나에게는 선천적인 결함이 있었다: 나는 이기면서 지는 법을 알았다.

나는 테이블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내려 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를 소개했다. 그것은 약 10초 뒤에 저절로 알게 되었다.

첫 번째 여자가 이름과 성을 밝히자, 나는 완벽한 Gillette 남자의 방식으로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그러고 나서 테이블의 다른 모든 여자에게도 똑같이 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소와 함께: “Enchanté.” Made in Calabria.

그다음에야 나는 내 이름을 밝혔다. 그들 모두가 이미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데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들은 무엇을 마시겠는지, 아침 식사를 하겠는지, 작은 페이스트리라도 들겠는지 물었다. 나는 내가 늘 묵는 호텔의 직원들이 내가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을 먼저 지켜보지 않고는 아침에 나를 절대 내보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그들은 파리가 처음이냐고 물었다. 나는 몇 년 전 센강 기슭, 강가의 정원에서 일하며 꽃을 모아 매일 아침 노트르담 대성당에 싱싱하게 배달했다고 말했다. 성모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바로 이 여섯 분과의 만남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다리며 그 일을 했다고. 나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어쨌든 그것은 한 여인의 약속이었으니까.

그들은 미소 지었다. 분위기가 누그러졌다. 공감이 대화 속으로 들어왔다.

그때 그들 중 한 사람이 물었다. “Frega 씨, 프랑스에서 무엇이 가장 좋으세요?”

“그게 무슨 질문입니까?” 내가 대답했다. “답은 뻔하잖아요.”

BIC.

대화는 곧바로 기분 좋은 방향으로 흘렀다.

조금 뒤 우리는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이어 가기로 하고 샹젤리제를 따라 100미터쯤 걸었다. 그런데 걷는 내내 나는 같은 남자 셋, 혹은 다섯이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는 것을 계속 알아차렸다. 나는 처음부터 그들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들도 나를 알아차렸다. 경호원들이었다. 너무 가깝지도 않게. 너무 멀지도 않게.

우리는 프랑스 레스토랑에 들어갔다.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작은 재산을 내는, 전형적인 프랑스 레스토랑.

나는 Chanel을 불렀다. 그녀는 곧바로 나에게 다가왔다.

“무슨 일이에요?”

“나갑시다.”

“나가요?”

“네. 제가 여러분 모두를 먹으러 데려가겠습니다.”

꼬박 1분 동안 그들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손님이 춤을 이끄는 모습은 그들이 보는 데 익숙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내 제안이 너무나 설득력 있어서 모두가 따라왔다. 수탉 뒤를 따라 걷는 암탉들처럼. 하긴 우리는 수탉의 나라에 있었다.

우리는 처음 눈에 띈 피자 가게 겸 샌드위치 가게에 도착했다. 들어가기 전에 나는 주인에게 다가갔다.

“샌드위치 일곱 개 주세요. 하나에 5유로, 음료 포함으로.”

“그리고 계산은 제가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 좋은 인상도 함께.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완전히 어리둥절해 보였다. 마치 날개 달린 말을 타고 날아가는 듯,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들은 GILLETTENARRATIVE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누구도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다.

Ferdinando